

2025년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중기중앙회, 도내 중소기업 유공자 37명 포상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과 공동으로 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수출축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규모 대회이다.

이날 행사는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광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배지연 전주고용복지+센터소장,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인 80여명이 참석

했다.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우수단체 등 총 37점의 포상이 수여됐으며, 주식회사에이스안전재리 최호림 대표이사, (주)미첼 윤성원 대표이사, 산업포장을 (주)일진도시환경 공진권 대표이사, 대통령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식회사에이스안전재리 최호림 대표이사는 1997년 기업을 설립해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안전강화유리 제조 기술 특허 12종을 취득했으며, 국내 최대 안전유리 가공 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2005년 (주)미첼에 취임한 윤성원 대표이사는 셔츠 등 의류 유통·제조에서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히 유연근무제, 여성친화 일자리, 첨단 물류시스템 도입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취약계층 후원과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실천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

소기업 발전을 위해 애쓴 수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전북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일부터 순차적으로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어려운 금융 환경에도 언제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전북은행의 마음을 담아 우산을 통해 고객에게 따뜻한 동행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우천 시 우산을 소지하지 않은 내정 고객들의 불편 해소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일회용 우산 사용을 줄여 ESG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유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2일부터 전주, 익산, 군산 지역 전북은행 주요 지점 총 55곳에 공유 우산 대여함을 설치하며, 우천 시 고객이 필요할 때 무료 대여 및 사용 종료 후 가까운 전북은행 지점에 자율 반납 형식으로 운영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서비스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전북은행이 고객 곁에서 어려운 상황 속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담았다"면서 "더불어 일회용 사용품을 줄여 환경을 생각하는 ESG 가치 실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개발공사,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위'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전북 22개 공기업 중 1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2025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78.77%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내 22개 공기업 및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63%)를 135.81%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14개 공사가 행안부 목표(63%)를 초과했고, 그 중 8개 공사가 70%이상을 달성했으나 전북개발공사는 목표치인 81.8% 원보다 약 300여원을 초과 달성해 16

개 도시개발공사 중 전국 1위를 차지, 장기화된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민생경기 회복에 미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북자치도 내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 시설관리공단 등 총 22개 공기업 중에서도 7개 공기업이 정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공사가 유일하게 1천억이 넘는 재정 신속집행으로 전북자치도 공기업 1위는 물론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공사는 주택건설, 도시개발 등 경제

파급력이 큰 사업을 추진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제시한 정부 재정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활용 및 선급금 집행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침체된 전북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던 점이 신속집행 최고 달성률로 나타났다"면서 "하반기에도 반영된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미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사업장 대표·실무자 부가가치세법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달 30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중무·회계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들으면 더욱 유용한 부가가치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무그룹 에이블 안병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부가가치(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미, 사업자, 과세대상 거래 명세와 면세, 세금 계산서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등의 설명을 실무 담당자가 업무에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 기상재해 예방·물관리 강화

농어촌공 전북전주기상지청, 기상기후·재난분야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와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인성)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도내 농어촌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과 물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상재해 대응 및 안전 취약 저수지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 공유와 지원, △농어촌 지역 기상·수문 관측자료 공유 및 관측 인프라 구축 협력, △양 기관 간 정책 자문과 기술 교류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불해는 장마가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되어 최근 2차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강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상청의 방대한 기상·기후 정보와 공사의 현장 기반 기술과 인프라의 연계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도내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와 여름철 폭염 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폭염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

전주시·청년자율방재단과 홍보 캠페인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와 여름철 폭염 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관내 노후 무더위 쉼터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시민 대상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와 재난구호기금 전달 등 종합적인 재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폭염 일수 증가와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여름철 동안 고장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는 전주시·청년자율방재단원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자립준비 청년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폭염 피해는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라며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폭염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특별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